

特許紛爭 해결 口頭審判 증가

올들어 45件 處理...信賴性 높아 選

特許廳이 特許紛爭에서 審判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口頭審判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特許廳에 따르면 85년 口頭審判實績은 2건에 불과했으나, 96년에는 30건, 87년에는 43건으로 늘어났고, 올들어서는 9월 말까지 45건의 特許紛爭을 口頭審判으로 처리했다.

特許廳이 口頭審判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중진에는 特許

紛爭 등을 처리할 때 書類審査 위주로 審判을 진행했으나 최근들어 辨理士 이해당사자들을

직접 소환, 審判을 진행함으로써 審判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發明班 設置 · 運營 활발

총 7백26개校...國校生 가장 많아

學生發明班을 통한 학생들의 발명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학생발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7백 26개교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국민학교가 4개 58교로 가장 많고 중학교가 1백 81개교, 고등학교가 78개교로 각각 나타나 학년이 낮을수록 학생들의 발명활동은 더욱 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전문대 2개교, 대학 7개교가 학생발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같은 학생발명활동을 적극 권장키 위해 학생출원에 대한 수수료와 등록금을 면제한데 이어 앞으로 장학금및 학생발명반활성화 지원금을 지급하는등 학생발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朴弘植 特許廳長

WIPO 總會 參席

朴弘植 特許廳長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IPO總會 및 관련운영기구의 會議에 참석했다.

이번 總會에서는 지난 會期の事業活動評價 및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協約의 改正, 申請各作品的 國際登錄機構 設立 등에 관해 토의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總會에서 WIPO調整委員國으로 피선된 후 처음으로 WIPO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해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朴特許廳長은 이번 會期中 WIPO 사무총장 및 각국의 特許廳長 그리고 AIPPI 會長등과 만나 상호 협력방안도 論議했다. <☞>

北韓 소식

「전국 發明家 대회」 열어

北韓은 지난 11일 과학기술발전과 이를 대중적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국발명가大會」를 平壤서 개최했다고 北韓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이 大會에서는 지금까지 발명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과학기술발전3개년계획 및 3차 7개년경제계획(87~93)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발명가들의 역할 등에 관해 토의했다. <☞>